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언제 죽음의 신이 나타날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으니,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지어다.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번개처럼 들이닥칩니다. 어떤 상황 이긴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일 수 있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혹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가까이하던 것들을 다 놓아야만 합니다. 오고 가던 대화는 다 마치지 못할 수 있고, 먹던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계획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 살해당한 사람, 오염된 음식에 중독돼 죽은 사람, 혹은 악을 잘못 투여해 죽은 사람, 게인이나 운동 중 부상을 입어 죽은 사람, 전쟁에 의해 희생된 사람 등 죽음은 늘 이렇게 가까이 숨어 있는 위협적 존재입니다.

죽음은 산적이 들끓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 여객자 같아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므로 늘 주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한 장소에서 이를 밤 이상 묵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을 청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되지 않을까?"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헌 위배 결정’ 법규위, 역풍 맞다

위원장 허운 스님 사임... 유감 표명 입장문 발표

1994년 종단 사태로 제탈도침된 의현 스님(서황룡)의 심리를 위해 무리한 법 집행을 한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현 위원장인 허운 스님(前 동화사 주지)은 사임을 밝혔고 법규위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규위원회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78차 회의를 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규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77차 회의서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을 위헌종법조항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각 위원의 승가 양심과 소신에 따른 심판”이라며 “다만 진행과정에서 법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도들에게 우려와 논란을 불러온 책임을 지기 위해 현 법규위원장이 그 직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했다”며 “많은 종도들의 우려와 같이 94년 종단개혁과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규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의현 스님의 ‘제탈도침 징계 특별재심 요청 심판청구의 권’을 다뤘다. 의현 스님의 심판대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법규위원회는 결국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은 종헌 위배라는 판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은 위원회의 행정처분 범위를 ‘종무행정기관(종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써 법규위원회는 의현 스님의 청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리를 진행했다.

의현 스님 청구 기각 방침

중앙총회 반발에 한발 후퇴

총회, 법규위법 개정 변함없어

하지만 이 같은 법규위의 결정은 당장 중앙총회의 반발을 샀다. 중앙총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3월 1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을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종헌종법특위가 마련한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현 제2조 2항을 삭제하고, 2항과 똑같은 내용이 담긴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위헌 판결을 받



3월 15일 열린 조계종 법규위원회 제78차 긴급 회의. 이날 법규위는 위원장 사임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은 조항은 과거 법규위원회가 사법처분에 대해 관여하면서 논란이 돼 관장사항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규위원회가 의현 스님의 청구를 다루기 위해 종헌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총회는 3월 8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종헌 위배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가 종헌의 삼권분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중앙총회의원 명명 스님은 법규위원장의 불신임 결의를 중앙총회 제193차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규위에 대한 중앙총회의 입장은 아직 강경한 편이다. 허운 스님의 사임으로 불신임 결의 안건은 철회되겠지만, 종헌종법특위가 상정한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위원장 사임과는 별개로 법 개정 추진할 것”이라며 “법규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조항 환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일련의 사태로 법규위원회가 의현 스님(서황룡)의 심리를 기각할 것으로 알려져 사면 복권의 추진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차별금지법 잇달아 발의 ‘입법화 주목’

불교계, 조계종 등 찬성... 개신교 반대 움직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포괄적인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지난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제출한 ‘차별금지법 관련 기본법’,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이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법안 모두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론적으로는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 및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조치 및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소속 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명문화 했다.

불교계는 이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미 오래전부터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등의 제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5일 국회 정각회 조찬법회 후 가진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차별금지법의 국회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신교의 반대 움직임이다. 표면상으로는 동성애나 동성혼 등이 조장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속내

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강압적 논조전도 등이 불가능해진다든 위기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연합은 3월 12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간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최근 불교계가 추진한 ‘종교평화법’ 과도 연관성이 있어 궁극적인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법안이 사회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대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한 ‘한국교회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도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결됐다. 거센 개신교계의 반대 움직임에도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향후 주목되고 있다.

신종일 기자

정전 60주년 평화대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한반도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의 전반적인 행사와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홈페이지(http://budpeace.org)를 개통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평화대회 홈페이지는 △분행위원회 소개 △알림마당 △프로그램 안내 △중합자료실 △지원활동 △한국전쟁과 부산 등으로 구성했다.

한반도 평화대회 심볼과 로고도 제작됐다. 심볼과 로고는 참여연대 심볼을 제작한 아트디렉터 이상철(이가 스킨)이 씨가 도안했다.

신종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에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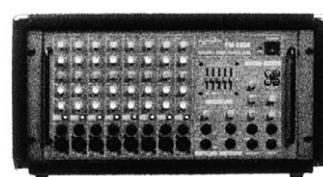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디스크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